

## 법무매거진

# 잇달아 文정권 손들어준 현재, 재판관 지형 바뀌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 쪽에 유리한 판단을 내놓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건 모두 9명 재판관의 의견이 5:4로 엇갈렸던 점이다. 이는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교체 예정인 3명이 이런 지형을 바꿔놓을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조치는 문제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4년 전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된 건 없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현재는 다음날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

렸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역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두 법안 모두 한 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정이 엇갈린 만큼 재판관의 성향 자체가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두 사안 모두 5명의 재판관이 같았던 것은 아니다. 유남석 현재재판소장을 비롯해 김기영, 이미선, 이석태 등 4명만 두 건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중 유 소장은 오는 10월, 이 재판관은 이달 퇴임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지난 달 28일 이미 퇴임했다. 올해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교체되는 셈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이선애 재판관

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평가받았다.

유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중도 진보라는 분석이 높았다. 결국 진보 성향 재판관(유남석 소장 포함) 2명과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 1명이 현재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셈이다.

김형두 신임 재판관은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다. 오는 4월 취임이 유력한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석된다. 유남석 소장의 후임으로도 진보 성향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했던 대법원과 현재 구성에 변화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주간조선)